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6.(수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 권재관 (044-215-5450)
		담당자	사무관 송현정 (hjsong123@korea.kr)

민자적격성 조사는 KDI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기관도 수행 가능하며, 평균 조사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2.7.7.(목) 서울경제는 「KDI 독점에 적격성 심사 1177일 걸려… “경쟁체제로 효율성 높여야”」 기사에서,
 - KDI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전담하면서 조사기간이 시한(270일)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‘평가기관을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’ 는 전문가 지적을 언급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현재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KDI뿐 아니라 전문기관*도 가능하며, 조세연에서도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TFT 조직을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.

* 국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15개 기관

- 향후에도 기재부는 민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세연 및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.

- 한편, KDI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행에 평균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*이며,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.

※ 민자적격성조사 평균실시기간(개월): ('18)11 ('19)13 ('20)11 ('21)12